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III. 경영참고사항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6
나. 회사의 현황	6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1
□ 재무제표의 승인.....	11
□ 이사의 선임.....	51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51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51
※ 참고사항.....	52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 년 3 월 6 일

회 사 명 :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동한, 안병준, 김병목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덕고개길 12-11
(전 화)02-515-0150
(홈페이지)<http://www.kolma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안병준
(전 화)02-3485-033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정기)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17 한국콜마 세종공장 4층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28기 (2017. 1. 1 ~ 2017. 12. 31)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2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다.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배당금 : 185원 (현금배당률 37%)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18년 3월 6일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찬오 (출석률: 25%)	김구철 (출석률: 91.7%)	김현준에이치 (출석률: 0%)
			찬 반 여 부		
1	2017.01.10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 주식매수의 건	찬성	찬성	-
2	2017.02.13	제2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3	2017.03.09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
4	2017.03.24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5	2017.03.30	콜마스크 주식회사 출자의 건	-	찬성	-
6	2017.06.09	산업은행 시설자금 차입의 건	-	찬성	-
7	2017.08.11	통화 스왑 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8	2017.08.11	외화표시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9	2017.08.25	콜마비엔에이치, 콜마파마 구주매각 및 교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10	2018.01.18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건	-	찬성	-
11	2018.01.31	한국콜마주식회사 주식 매수 건	-	찬성	-
12	2018.02.14	제2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4,000,000,000	48,000,000	24,000,000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17년 3월 24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제28기(2017년) 이사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2)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상기 지급 총액을 인원수로 단순 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②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⑤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콜마(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인 한국콜마(주) 등으로 부터 받는 상표권사용수익, 경영관리수수료, 지분법이익, 배당금 및 임대료 등이 주 수입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은 계열회사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기업가치 상승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인 콜마비엔에이치(주), 콜마파마(주), 한국콜마주식회사는 각각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부문

가. 산업의 특성 등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물학, 약학, 생리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전형적인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 높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화장품은 재화 측면에서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필수 소비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산업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으로서 소규모 자본 투자형 산업입니다. 또한 국내외 화장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과 생산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은 연평균 5%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점은 1. 수출의 증가, 2. 온라인 및 드럭스토어 채널의 확대, 3. 화장품 사용자의 확대입니다. 특히 최근 1~2년간 합리적 소비 트렌드의 확산과 빠르게 변하는 소비성향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제품과 PB제품 등이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제약업계, 유통업계, 패션업계 등 이종 산업에서의 화장품 유통판매업 진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른 화장품 산업 내 변화는 빠르고 다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과거 화장품 산업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었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범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 역시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ODM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ODM/OEM 시장에는 현재 약 2~300 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한국콜마(주)를 포함한 매출액 기준 상위 3개 업체(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약 50~6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ODM 산업 내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나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화장품 소매업 진출 트렌드, 날로 세분화되는 소비자 니즈, 급변하는 시장 유행에 따라 ODM/OEM에 대한 브랜드 업체들의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은 각 사별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화장품 산업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실현해 왔으며 ODM/OEM업계 선도업체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DM 방식은 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의 약자로 당사에서 직접 처방을 연구 개발하여 해당 기술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주문에 의해 납품되는 방식으로 당사 화장품 부문 매출의 95% 이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당사의 시장 내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기준 중고가 위주의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 전반에 걸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비롯한 2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사 화장품 부문의 경쟁우위요소로는 ① R&D 및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능력, ② 생산 대응능력 ③ 제약 산업과의 시너지 등이 있습니다.

① R&D 및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능력

당사는 기초/기능성 제품의 R&D에 독보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 업체 최초로 SUN제품의 미FDA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매출의 약 5~6%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력의 1/3이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 당사는 식약처 지정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와 국제기준 CGMP인 ISO22716를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받아 업계 선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최다품질관리 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에 엄격한 글로벌 고가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의 수주도 받으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② 생산대응능력

당사는 2014년 10월 세종시에 화장품 기초 신공장을 완공하며 국내 최대 규모 Capa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생산능력은 국내 약 7,500억(화장품 기초 6,000억, 화장품 색조 1,500억), 해외 약 2,800억(북경콜마 1,500억, 미국 PTP 800억, 캐나다 CSR 500억)이며 이는 국내 우수 브랜드 업체들과 대등한 생산 수준입니다.

(제약 부문: 약 4,000억)

특히 과거에 비해 시장 내 유행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국내 ODM/OEM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대응능력은 ODM/OEM업체의 중요한 경쟁우위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③ 제약 산업과의 시너지

화장품 산업과 제약 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제품이 인체에 적용되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당사의 별도 매출 중 약 71.8%는 화장품 부문, 28.2%는 제약 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당사의 화장품 부문과 제약 부문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부문의 경우, 제약부문의 엄격한 공정관리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업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핵심 기술인 DDS(Drug Delivery System)를 화장품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제약부문

가. 산업의 특성 등

제약 산업은 인간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 특허 위주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필수소비재 특성을 가진 경기방어적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의 특징으로는 ①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중심 산업 ②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국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받는 점 ③ 전문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닌 처방의사에게 있어 의약품기업들이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 등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12년에 시행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였습니다. 다만, CMO 산업의 경우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제약 산업 내 대형사/중소형사 간 역할 분화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외 의약품 시장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 신약승인 수

감소, 제네릭 중심의 의료 정책 등으로 저성장이 예상되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인구 증가, 급속한 경제 성장, 만성 질환 급증 등으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2002년 제약사업에 진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안전기준) 적합판정(2002년 7월) 및 제조업허가(2002년 5월)를 받아 2002년 8월부터 연고제, 액제, 고형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개발, 생산 전문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당사 제약부문에서는 주요 전문/일반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실험, 허가권 취득, 생산 등을 담당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사업만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업체 중 당사가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 가능 제형 수 및 보유 허가권 수 또한 당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최근사업연도말 기준 475품목)

※ 시장점유율은 각 사별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당사 제약 부문의 경쟁우위요소로는 ①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수탁 부문 매출 증대기대 ②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③ 화장품 산업과의 시너지 ④ 증설을 통한 생산대응능력 확보 등이 있습니다.

①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수탁 부문 매출 증대 기대

'약가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주요 의약품 판매회사들의 매출액 및 이익 등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로의 아웃소싱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약 개발 위주의 대형제약사와 영업으로 특화하는 중소형 제약사로 제약 시장이 양분되는 가운데, 일선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자체적인 허가권 취득 및 생산 여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바, 여러 제약사들로부터 수탁의뢰를 받는 당사의 특성상 의약품생산에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당사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약 65%, 35%로 일정 수준 다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의약품 매출을 통한 전문 의약품 약가 인하 리스크의 분산이 일정 수준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인 일반의약품 개발을 통하여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③ 화장품 산업과의 시너지

화장품 산업과 제약 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제품이 인체에 적용되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축적된 업계 최고수준의 유효기술을 생산 공정이 유사한 제약 부문의 연고크림제형 생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부문 피부과학연구소의 오랜 연구결과와 노하우를 피부과 전문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활용하고있습니다.

④ 증설을 통한 생산대응능력 확보

당사 제약부문은 지난 2년간 기존 1,500억 CAPA에 2,500억 원 CAPA를 추가하는 증설을 진행하여 당기 말 현재 약 4,000억 원의 CAP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용 고형제의 생산능력이 2배 이상 증대되고, 무균제(주사제, 점안제, 수액제)의 대단위 생산 제형을 추가하여, 국내 제네릭 업체 중 최초로 전 제형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GMP(유럽), C-GMP(미국) 인증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제약 부문 내 수출 비중 확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부문

가. 산업의 특성 등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으로 정의되며, 기능성이라고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또는 성분)인 "고시형 원료"와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또는 성분)인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여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장건강개선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바이오텍사업부문과 푸디팜사업부문에서 OEM/OD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 등

소득수준의 증가 및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1.13조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0.09조원으로 전년대비 29.25%, 수입액은 0.50조원으로 13.11%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규모 1.54조원,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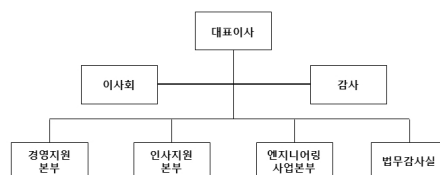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장건강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간건강 건강기능식품(밀크씨슬추출물)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등으로 인한 간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수요 증대, 일반 방사능 유출, 환경오염, 자외선 등으로 인한 면역기능,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등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영업의 개황 등

건강기능식품 중 당사의 주력제품은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설립 당시 한국원자력기술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면역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2006년 식약처로부터 당귀혼합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승인 받았으며, 동 소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은 2015년 현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조직도

한국콜마홀딩스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본 공시의 '1. 사업의 개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8 (당)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전)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284,841,268,022		209,901,118,347
1.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 3,33,39)	50,890,944,942		26,578,923,397	
2. 단기금융상품 (주석 3,4,33,34,39)	138,591,126,495		7,075,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석 5,33,39)	44,692,824,702		27,222,926,009	
4. 기타금융자산 (주석 6,33,34,39)	2,500,224,563		120,185,971,864	
5. 기타유동자산 (주석 7,33,39)	5,353,018,709		4,904,797,096	
6. 재고자산 (주석 8)	42,797,402,317		23,584,873,945	
7. 당기법인세자산	15,726,294		348,626,036	
II. 비유동자산		462,016,447,169		357,668,769,840
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석 9,33,39)	1,343,445,060		1,907,570,560	
2. 유형자산 (주석 10)	129,257,593,970		91,324,584,151	
3. 투자부동산 (주석 11)	84,699,781,679		77,384,778,067	
4. 무형자산 (주석 12)	20,010,845,826		4,656,894,519	
5.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주석 13)	187,719,133,589		178,322,203,009	
6. 장기기타금융자산 (주석 4,14,33,34,39)	31,974,368,294		3,961,476,410	
7. 기타비유동자산 (주석 7)	132,793,124		111,263,124	
8. 이연법인세자산 (주석 30)	6,878,485,627		-	
자 산 총 계		746,857,715,191		567,569,888,187
부 채				
I. 유동부채		278,243,175,890		235,521,245,10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석 15,33,39)	74,606,527,381		21,662,307,526	

2. 차입금 (주석 10,16,33,35,36,39)	158,407,014,887		189,029,155,258	
3. 파생금융부채 (주석 17,33,34,39)	15,149,814,034		14,348,240,000	
4. 당기법인세부채	21,401,825,369		5,188,785,179	
5. 기타유동부채 (주석 18,33,39)	8,376,933,030		4,873,702,724	
6. 총당부채 (주석 20)	301,061,189		419,054,417	
II. 비유동부채		76,391,810,172		12,969,307,414
1. 순확정급여부채 (주석 19)	3,823,122,584		2,590,536,406	
2. 차입금 (주석 10,16,33,36,39)	32,599,913,883		5,600,000,000	
3. 파생금융부채 (주석 17,33,34,39)	1,295,549,687		-	
4. 기타비유동부채 (주석 18,33,39)	38,518,214,421		1,965,500,000	
5.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석 15,33,39)	-		18,000,000	
6. 총당부채 (주석 20)	155,009,597		190,444,614	
7. 이연법인세부채 (주석 30)	-		2,604,826,394	
부 채 총 계		354,634,986,062		248,490,552,518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93,782,032,281		252,773,717,344
I. 자본금 (주석 21)		8,374,468,000		8,374,468,000
1. 보통주자본금	8,374,468,000		8,374,468,000	
II. 자본잉여금 (주석 22)		172,235,183,698		153,020,704,888
1. 주식발행초과금	140,878,396,651		140,878,396,651	
2. 기타자본잉여금	31,356,787,047		12,142,308,237	
III. 자본조정 (주석 23)		(1,492,484,676)		(1,492,484,676)
1. 자기주식	(684,589,461)		(684,589,461)	
2. 기타자본조정	(807,895,215)		(807,895,21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석14)		(978,554,144)		1,286,464,143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7,124,798		(128,592,777)	
2. 해외사업환산손익	(1,024,002,637)		-	
3. 지분법자본변동	28,323,695		1,415,056,920	
V. 이익잉여금 (주석 24)		115,643,419,403		91,584,564,989
1. 법정적립금	1,225,050,194		582,914,840	
2. 임의적립금	22,530,000,000		1,130,000,000	
3. 미처분이익잉여금	91,888,369,209		89,871,650,149	
비지배지분		98,440,696,848		66,305,618,325
자 본 총 계		392,222,729,129		319,079,335,66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46,857,715,191		567,569,888,187

-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 (당) 기 :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 기 :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I. 매출액 (주석 25,26)		490,565,263,213		330,438,588,906
II. 매출원가 (주석 26)		(382,473,889,489)		(249,385,648,523)

III. 매출총이익		108,091,373,724		81,052,940,383
IV. 판매비와관리비 (주석 26)		(46,293,315,018)		(32,320,625,925)
V. 관계기업과공동기업투자손익 (주석 13,27)		19,965,572,132		12,451,654,238
VI. 영업이익		81,763,630,838		61,183,968,696
1. 기타수익 (주석 28)	500,441,254		950,122,681	
2. 기타비용 (주석 28)	(326,364,824)		(8,361,112,305)	
3. 금융수익 (주석 29)	6,148,784,449		19,465,363,125	
4. 금융비용 (주석 29)	(20,458,037,658)		(11,151,343,329)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67,628,454,059		62,086,998,868
1. 법인세비용 (주석 30)	15,964,456,449		(11,085,457,325)	
VIII. 연결당기순이익		51,663,997,610		51,001,541,543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8,032,100,059		36,641,942,552	
2. 비지배지분	23,631,897,551		14,359,598,991	
IX. 연결당기기타포괄손익		(3,881,606,211)		(567,229,47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2,329,390,042)		574,644,131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41,357,020		(4,779,150)	
2. 해외사업환산손익	(1,130,871,588)			
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1,339,875,474)		579,423,28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552,216,169)		(1,141,873,608)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959,287,648)		(835,836,582)	
2.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92,928,521)		(306,037,026)	
X. 연결총포괄손익		47,782,391,399		50,434,312,066
연결총포괄손익의 귀속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4,366,759,851		36,309,050,935	
2. 비지배지분	23,415,631,548		14,125,261,131	
X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주석 31)				
지배기업 기본주당이익		1,683		2,201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8 (당) 기 :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 기 :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소계		
2016년 1월 1일(전기초)	8,374,468,000	153,038,797,261	(1,478,072,676)	679,499,820	54,443,439,428	215,058,131,833	52,765,631,541	267,823,763,374
I. 연결총포괄손익								
1. 연결당기순이익	-	-	-	-	36,641,942,552	36,641,942,552	14,359,598,991	51,001,541,543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633,818,914)	(633,818,914)	(202,017,668)	(835,836,582)
3.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변동	-	-	-	-	(306,037,026)	(306,037,026)	-	(306,037,026)

4.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562,720)	-	(2,562,720)	(2,216,430)	(4,779,150)
5. 지분법자본변동	-	-	-	609,527,043	-	609,527,043	(30,103,762)	579,423,281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2,081,429,500)	(2,081,429,500)	(808,045,875)	(2,889,475,375)
2.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변동	-	(18,092,373)	-	-	-	(18,092,373)	(21,482,472)	(39,574,845)
3. 유상증자	-	-	(14,412,000)	-	-	(14,412,000)	244,254,000	229,842,000
4. 비지배지분 추가취득	-	-	-	-	3,520,468,449	3,520,468,449	-	3,520,468,449
2016년 12월 31일(전기말)	8,374,468,000	153,020,704,888	(1,492,484,676)	1,286,464,143	91,584,564,989	252,773,717,344	66,305,618,325	319,079,335,669
2017년 1월 1일(당기초)	8,374,468,000	153,020,704,888	(1,492,484,676)	1,286,464,143	91,584,564,989	252,773,717,344	66,305,618,325	319,079,335,669
I. 연결총포괄손익								
1. 연결당기순이익	-	-	-	-	28,032,100,059	28,032,100,059	23,631,897,551	51,663,997,610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807,393,400)	(807,393,400)	(151,894,248)	(959,287,648)
3.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변동	-	-	-	-	(592,928,521)	(592,928,521)	-	(592,928,521)
4.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45,717,575	-	145,717,575	(4,360,555)	141,357,020
5. 해외사업장환산 외환차이	-	-	-	(1,024,002,637)	-	(1,024,002,637)	(106,868,951)	(1,130,871,588)
6. 지분법자본변동	-	-	-	(1,386,733,225)	-	(1,386,733,225)	46,857,751	(1,339,875,474)
II.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2,580,972,580)	(2,580,972,580)	(1,680,735,420)	(4,261,708,000)
2. 관계기업의 사업결합	-	2,373,365,579	-	-	-	2,373,365,579	-	2,373,365,579
3.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변동	-	81,274	-	-	-	81,274	95,966,726	96,048,000
4. 비지배지분 추가취득	-	-	-	-	8,048,856	8,048,856	10,304,215,669	10,312,264,525
5. 장기지분매각 기타채무의 변동	-	16,841,031,957	-	-	-	16,841,031,957	-	16,841,031,957
2017년 12월 31일(당기말)	8,374,468,000	172,235,183,698	(1,492,484,676)	(978,554,144)	115,643,419,403	293,782,032,281	98,440,696,848	392,222,729,129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림 표>

제 28 (당) 기 :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 기 :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262,360,379		25,257,525,875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62,283,680,566		33,596,630,946	
(1) 연결당기순이익	51,663,997,610		51,001,541,543	
(2) 조정	2,555,542,886		4,641,180,411	
가. 법인세비용	15,964,456,449		11,085,457,325	
나. 이자수익	(1,989,692,624)		(1,662,393,962)	
다. 이자비용	9,893,789,267		10,971,286,375	
라. 배당금수익	(399,771,635)		(954,221,616)	
마. 파생금융부채평가이익	(1,378,761,000)		(16,185,220,000)	
바. 파생금융부채평가손실	9,707,044,187		-	

사.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351,659,105)		-	
아. 단기금융상품처분손실	131,357,000		-	
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62,278,800)		(402,205,224)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97,730,940)	
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21,259,875	
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14,257,789		45,698,000	
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손상차손	150,000,000		-	
하. 외화환산이익	(1,307,473,246)		(71,053,299)	
거. 외화환산손실	41,607,125		5,698,114	
너. 퇴직급여	2,768,003,487		1,867,816,024	
더. 감가상각비	6,418,718,207		4,714,572,709	
러. 무형자산상각비	498,737,475		401,734,857	
머. 대손상각비	107,091,431		69,605,293	
버. 기타의대손상각비	34,316,979		4,458,999,600	
서. 투자부동산처분이익	(263,220,479)		-	
어. 유형자산처분이익	(18,971,303)		(40,821,919)	
저. 유형자산처분손실	65,800,226		434,172,930	
처. 무형자산처분손실	660,000		91,958,099	
커. 무형자산손상차손	-		18,000,603	
터. 재고자산평가손실	(438,807,566)		236,844,400	
퍼. 지분법이익	(10,797,448,847)		(13,000,067,768)	
허. 지분법손실	74,737,711		548,413,530	
고.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9,242,860,996)		-	
노.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0)		(456,350)	
도.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250,000,000		-	
로.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567,123,288)	
모. 반품충당부채전입(환입)	(35,435,017)		150,512,581	
보. 기부금	-		2,500,000,000	
소. 채무조정이익	(16,841,031,957)		-	
오. 사채상환이익	(437,521,872)		-	
조. 연구개발비	-		444,462	
(3) 자산및부채의 증감	8,064,140,070		(22,046,091,008)	
가.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917,517,425		(9,639,695,624)	
나.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90,272,136)		(4,646,973,948)	
다.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50,507,879)		(3,876,109,287)	
라.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3,464,714,502)		3,550,546,107	
마.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764,037,000		126,476,000	
바.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9,778,077,871		(4,380,178,270)	
사.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610,006,426		(278,983,832)	
아.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571,526,848		24,311,136	
자.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495,000,000)		(212,746,670)	
차. 퇴직금의 지급 등	(3,858,537,755)		(2,712,736,620)	
카.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117,993,228)		-	
2. 이자의 수령	1,877,608,943		1,781,891,288	
3. 이자의 지급	(547,024,508)		(1,315,184,548)	
4. 배당금의 수령	399,771,635		951,008,016	

5. 법인세의 납부	(11,751,676,257)		(9,756,819,82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274,733,145)		(40,703,323,48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99,378,004,766		228,515,710,094	
가. 기타채권의 감소	-		1,052,000	
나.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43,634,178,688		2,808,000,000	
다.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42,493,453,600		223,868,775,963	
라. 장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4,600,000		1,000,000	
마.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23,120,000		-	
바. 유형자산의 처분	360,894,298		386,803,309	
사. 투자부동산의 처분	7,934,867,000		-	
아.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		175,087,492	
자.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456,350	
차.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3,405,999,294		-	
카.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	1,143,160,250		1,274,534,980	
타.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347,731,636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65,652,737,911)		(269,219,033,581)	
가. 기타채권의 증가	-		15,000,000	
나.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28,782,807,780		2,527,600,000	
다.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67,145,064,122		200,809,256,121	
라.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14,255,000		-	
마.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9,218,521,480		299,535,525	
바.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14,500,000		-	
사. 유형자산의 취득	18,498,212,053		13,059,588,243	
아. 투자부동산의 취득	11,109,479,128		44,773,959,944	
자. 무형자산의 취득	843,312,538		788,411,100	
차.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10,005,055,810		4,445,682,648	
카. 기타의투자자산의 취득	21,530,000		2,5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919,862,252		22,162,731,78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86,221,589,296		39,581,800,000	
가. 차입금의 증가	103,226,086,296		39,331,800,000	
나. 유상증자	100,000,000		-	
다. 교환사채의 발행	52,473,045,000		-	
라. 해외사채의 발행	30,422,458,000		-	
마. 비지배주주지분의 증가	-		25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7,301,727,044)		(17,419,068,220)	
가. 차입금의 상환	142,168,331,274		14,484,272,000	
나. 배당금의 지급	5,061,708,000		2,889,475,375	
다. 신주발행비	71,687,770		45,320,845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95,467,941)		47,647,964
V. 현금의 증가(감소)(I + II + III + IV)		24,312,021,545		6,764,582,132
VI. 기초의 현금		26,578,923,397		19,814,341,265
VII. 기말의 현금		50,890,944,942		26,578,923,397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8 (당)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9개의 국내종속기업(이하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와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당사의 개황과 주요영업내용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0년 5월 15일에 화장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화장품 및 제약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상호를 한국콜마주식회사에서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당기		전기	
	보통주(주)	지분율(%)	보통주(주)	지분율(%)
윤동한	5,064,533	30.24	5,064,533	30.24
윤상현	3,126,475	18.67	3,126,475	18.67
일본콜마	1,337,463	7.99	1,337,463	7.99
기타	7,220,465	43.10	7,220,465	43.10
합계	16,748,936	100.00	16,748,936	100.00

1-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와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영업활동	소재지	결산월	소유지분율(%)		지배관계 근거
				당기	전기	
콜마비엔에이치(주)(주1)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대한민국	12월	56.23	56.23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근오농림(주)(주2)	작물재배 및 농업임대업	대한민국	12월	75.00	75.0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주)에치엔지(주3)	화장품,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대한민국	12월	60.94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주)케이비랩(주3)	화장품 도소매	대한민국	12월	100.00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주3)	보건식품, 영양식품 제조	중국	12월	100.00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씨엔아이개발(주)	부동산임대업 등	대한민국	12월	77.94	77.94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콜마파마(주)(주1)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대한민국	12월	77.10	77.1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Seokoh Canada, Inc.(주4)	부동산임대업 등	캐나다	12월	100.00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콜마스크(주)(주4)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대한민국	12월	51.00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주1) 당사는 당기 중 콜마비엔에이치(주) 보통주 1,797,704주와 콜마파마(주)의 보통주 1,749,616주를 매각하였으나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보유로 인해 회계상 담보차입으로 보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매각으로 인식할 경우 지분율은 각각 50.15%와 69.43%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당기 중 당사가 보유중인 콜마비앤에이치(주)와 콜마파마(주)의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총 교환대상 주식수는 콜마비앤에이치(주)와 콜마파마(주) 각각 1,559,044주와 1,673,512주이며, 전량 교환되는 경우 콜마비앤에이치(주)와 콜마파마(주)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각각 현재 56.23%와 77.10%에서 50.95%와 69.77%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주2) 근오농림(주)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종속기업입니다.

(주3) (주)에치엔지, (주)케이비랩,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는 당기 중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으며, (주)케이비랩은 (주)에치엔지의 종속기업이면서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손자회사입니다.

(주4) 당기 중 Seokoh Canada, Inc.와 콜마스크(주)가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3. 연결실체의 재무현황

당기와 전기의 연결실체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속기업명	당기					
	총자산	총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콜마비앤에이치(주)(주1)	270,774,405	92,850,017	177,924,388	419,806,573	47,436,930	47,126,317
씨엔아이개발(주)	34,495,863	28,832,269	5,663,594	3,949,852	(22,331)	(7,287)
콜마파마(주)	65,318,509	25,150,303	40,168,206	70,334,618	7,936,684	7,587,448
Seokoh Canada, Inc.	14,718,379	96,385	14,621,994	426,103	128,969	(757,736)
콜마스크(주)	20,227,498	10,802,590	9,424,908	10,615,247	340,959	333,490

(주1)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재무정보는 근오농림(주), (주)에치엔지, (주)케이비랩,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입니다.

(단위 : 천원)						
종속기업명	전기					
	총자산	총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콜마비앤에이치(주)(주2)	158,689,572	29,947,607	128,741,965	256,009,785	29,743,678	29,445,324
씨엔아이개발(주)	32,178,118	26,507,238	5,670,880	3,750,916	(586,899)	(580,518)
콜마파마(주)	55,665,303	23,084,545	32,580,758	58,161,267	6,333,066	5,873,841

(주2)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재무정보는 근오농림(주)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입니다.

1-4.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사 유
Seokoh Canada, Inc.	신규 지분 취득
콜마스크(주)	신규 지분 취득

(주)에치엔지	추가 지분 취득
(주)케이비랩	(주)에치엔지의 100% 종속기업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	신규 지분 취득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실체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조정됩니다. 또한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료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 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당기말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실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대여금및수취채권 123,606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31,312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15,55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 123,606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을 31,312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23,312백만원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8,000백만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을 115,557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부채는 파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적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주1)	손실충당금
---------	-------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 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및수취채권 123,60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3,386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등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예비영향평가를 한 결과 당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은 없을 것 예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계약',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정소급시]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3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 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 현재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제조 위수탁계약을 통해 화장품 ODM 및 제약 CMO 사업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1)제품의 판매, (2)운송 및 품질관리용역 (3)원자재 보관서비스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제품의 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고, (2) 운송 및 품질관리용역과 (3) 원자재 보관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 또는 용역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을인식하여야 합니다.

201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운송 및 품질관리용역과 원자재 보관서비스는 고객이 관련 재화를 통제하게 되기 전에 행한 주문 처리 활동이며,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선적시점 이후의 운송료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야 하나, 보고기간말에 운송중인 제품은 없거나 극히 일부이므로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선적시점 이후의 운송료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야 하나, 보고기간말에 운송중인 제품은 없거나 극히 일부이므로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변동대가

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

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수익의 인식은 변동대가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인식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01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결실체의 고객과의 계약서에는 제품의 판매수량이나 생산수량조건 등에 따라 계약단가가 변동되는 조건이 없으므로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의무에 배분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품의 판매와 운송 및 품질관리용역, 원자재 보관서비스의 제공이 각각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거래가격을 각각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의무에 배분하게 됩니다.

2017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사는 별도로 식별하는 수행의무가 없으므로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당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당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당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

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지분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 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 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 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 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 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수입수수료

수입수수료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이나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2) 손상

연결실체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 연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말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

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20년 - 40년
건축물	15년 - 40년
기계장치	4년 - 10년
차량운반구	5년 - 6년
기타의유형자산	4년 -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년에서 3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

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의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7.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와 당사가 보유하는 지분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또는 교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식별하여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만기상환금액은 이자금액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8.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자본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및 보상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분이 리스제공자에게 남아 있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추정과 판단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많은 추정과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할인율과 기대임금상승율 등 다양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2) 법인세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영업권의 손상검사

연결실체는 정기적으로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2-2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4.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5.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 사항은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8 (당)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전)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84,409,814,343		88,943,560,225
1.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3,31)	321,860,611		871,725,973	
2. 단기금융상품 (주석3,31)	77,250,824,879		1,925,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석5,31)	1,601,953,348		1,072,644,269	
4. 기타금융자산 (주석6,31)	3,100,224,563		83,843,212,244	
5. 기타유동자산 (주석7,31)	2,134,950,942		893,911,217	
6. 당기법인세자산	-		337,066,522	
Ⅱ. 비유동자산		287,913,277,169		239,560,899,363
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석8,31)	1,375,410,000		1,379,947,000	
2. 유형자산 (주석9)	525,853,720		143,398,240	
3. 투자부동산 (주석10)	56,460,589,551		56,544,311,532	
4. 무형자산 (주석11)	3,817,522,601		3,474,209,802	
5.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주석12)	204,348,352,315		174,264,276,505	
6. 장기기타금융자산 (주석4,13)	11,818,648,635		3,643,493,160	
7. 기타비유동자산 (주석7)	132,793,124		111,263,124	
8. 이연법인세자산(주석29)	9,434,107,223		-	

자산총계		372,323,091,512		328,504,459,588
부채				
Ⅰ. 유동부채		139,569,332,345		166,526,532,19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석14,31)	2,214,866,796		202,842,344	
2. 차입금 (주석15,31)	108,136,966,589		151,272,155,258	
3. 파생금융부채 (주석16,31,32)	15,149,814,034		14,348,240,000	
4. 당기법인세부채	13,311,163,494		-	
5. 기타유동부채 (주석17,31)	756,521,432		703,294,594	
Ⅱ. 비유동부채		69,076,580,869		2,157,641,789
1. 순확정급여부채 (주석18)	1,476,402,878		1,430,786,908	
2. 차입금 (주석15,31)	29,144,913,883		-	
3. 파생금융부채 (주석16,31,32)	1,295,549,687		-	
4. 기타비유동부채 (주석17,31)	37,159,714,421		130,000,000	
5. 이연법인세부채 (주석29)	-		596,854,881	
부채총계		208,645,913,214		168,684,173,985
자본				
Ⅰ. 자본금 (주석19)		8,374,468,000		8,374,468,000
1. 보통주자본금	8,374,468,000		8,374,468,000	
Ⅱ. 자본잉여금 (주석20)		142,821,501,451		142,821,501,451
1. 주식발행초과금	140,878,396,651		140,878,396,651	
2. 전환권대가	1,943,104,800		1,943,104,800	
Ⅲ. 자본조정 (주석21)		(684,589,461)		(684,589,461)
1. 자기주식	(684,589,461)		(684,589,461)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석13,22)		50,523,781		(98,624,655)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50,523,781		(98,624,655)	
Ⅴ. 이익잉여금 (주석23)		13,115,274,527		9,407,530,268
1. 법정적립금	841,012,098		582,914,840	
2. 임의적립금	1,130,000,000		1,130,000,000	
3. 미처분이익잉여금	11,144,262,429		7,694,615,428	
자본총계		163,677,178,298		159,820,285,603
부채와자본총계		372,323,091,512		328,504,459,588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8 (당)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Ⅰ. 영업수익(주석25)		22,246,565,803		17,131,303,911
Ⅱ. 영업비용(주석26)		15,004,987,742		9,766,964,033
Ⅲ. 영업이익		7,241,578,061		7,364,339,878
1. 기타수익(주석27)	272,495,954		569,048,013	
2. 기타비용(주석27)	39,938,322		7,073,405,767	

3. 금융수익(주석28)	21,638,835,478		18,268,007,088	
4. 금융비용(주석28)	18,712,755,957		9,893,705,975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400,215,214		9,234,283,237
Ⅴ. 법인세비용(주석29)		3,659,584,011		1,418,169,737
Ⅵ. 당기순이익		6,740,631,203		7,816,113,500
Ⅶ. 기타포괄손익		(302,765,928)		(158,196,652)
후속적으로당기순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포괄손익	(451,914,364)		(152,116,552)	
1. 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주석18)	(451,914,364)		(152,116,552)	
후속적으로당기순익으로재분류되는포괄손익	149,148,436		(6,080,100)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주석13)	149,148,436		(6,080,100)	
Ⅷ. 총포괄손익		6,437,865,275		7,657,916,848
Ⅵ. 주당손익(주석30)				
1. 기본주당이익		405		469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8 (당)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6년 1월 1일 (전기초)	8,374,468,000	142,821,501,451	(684,589,461)	(92,544,555)	3,824,962,820	154,243,798,255
Ⅰ.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7,816,113,500	7,816,113,500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6,080,100)	-	(6,080,100)
3.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52,116,552)	(152,116,552)
Ⅱ.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2,081,429,500)	(2,081,429,500)
2016년 12월 31일 (전기말)	8,374,468,000	142,821,501,451	(684,589,461)	(98,624,655)	9,407,530,268	159,820,285,603
2017년 1월 1일 (당기초)	8,374,468,000	142,821,501,451	(684,589,461)	(98,624,655)	9,407,530,268	159,820,285,603
Ⅰ.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6,740,631,203	6,740,631,203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49,148,436	-	149,148,436
3.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451,914,364)	(451,914,364)
Ⅱ.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2,580,972,580)	(2,580,972,580)
2017년 12월 31일 (당기말)	8,374,468,000	142,821,501,451	(684,589,461)	50,523,781	13,115,274,527	163,677,178,29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28 (당)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1,144,262,429		7,694,615,42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855,545,590		30,618,480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51,914,364)		(152,116,552)	
3. 당기순이익	6,740,631,203		7,816,113,500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1. 임의적립금 이입액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3,388,567,226		2,839,069,838
1. 이익준비금	308,051,566		258,097,258	
2. 배당금	3,080,515,660		2,580,972,580	
주당현금배당금(율) :				
보통주 : 당기 185원(37%)				
전기 155원(31%)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755,695,203		4,855,545,590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예정일은 2018년 3월 23일이고,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확정일은 2017년 3월 24일입니다.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8 (당)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 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8 (당) 기		제 27 (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89,212,396		2,269,664,67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788,097,323		(159,558,916)	
(1) 당기순이익	6,740,631,203		7,816,113,500	
(2) 조정	(1,585,735,513)		(1,384,477,287)	
가. 감가상각비	294,790,338		422,057,644	
나. 무형자산상각비	49,266,179		46,970,678	
다. 퇴직급여	899,636,976		552,930,540	
라. 이자비용	8,616,770,997		9,891,457,039	
마. 기부금	-		2,500,000,000	
바. 기타의대손상각비	-		4,458,999,600	
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190,000	
아.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250,000,000		-	
자. 무형자산처분손실	660,000		91,958,099	
차. 무형자산손상차손	-		18,000,603	
카. 파생금융부채평가손실	9,707,044,187		-	
타. 외화환산손실	4,212,213		-	
파. 유형자산처분이익	-		(1,639,517)	
하. 투자부동산처분이익	(263,220,479)		-	

거. 이자수익	(1,097,826,857)		(1,051,390,113)	
너. 배당금수익	(3,389,442,103)		(2,704,990,085)	
더.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309,901,077)		-	
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62,278,800)		(274,848,224)	
머. 파생금융부채평가이익	(1,378,761,000)		(16,185,220,000)	
버. 채무조정이익	(16,841,031,957)		-	
서. 외화환산이익	(1,287,716,269)		-	
어. 사채상환이익	(437,521,872)		-	
저.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567,123,288)	
처. 법인세비용	3,659,584,011		1,418,169,737	
(3) 자산 및 부채의 증감	(1,366,798,367)		(6,591,195,129)	
가.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6,621,351		(186,690,113)	
나.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615,930,430)		(4,463,521,650)	
다.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194,552,320)		(854,080,048)	
라.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증가)	4,537,000		31,476,000	
마.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012,024,452		96,325,977	
바.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226,100,024)		(64,705,295)	
사.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50,000,000	
아. 퇴직금의 지급 등	(1,433,398,396)		(1,200,000,000)	
2. 이자의 수령	1,051,339,452		1,143,827,327	
3. 이자의 지급	(382,745,902)		(229,707,775)	
4. 배당금의 수령	3,389,442,103		2,704,990,085	
5. 법인세의 환급(납부)	43,079,420		(1,189,886,049)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937,876,904)		(19,301,649,17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35,074,782,630		164,518,062,035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44,239,385,761		2,808,000,000	
나.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82,800,330,603		161,529,883,634	
다. 장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000,000		1,000,000	
라. 유형자산의처분	68,199,266		4,090,909	
마. 투자부동산의처분	7,934,867,000		-	
바. 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		175,087,49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65,012,659,534)		(183,819,711,210)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19,304,709,563)		(2,527,600,000)	
나.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995,064,122)		(132,588,373,771)	
다.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8,186,539,532)		(119,806,525)	
라. 유형자산의 취득	(515,634,518)		(47,750,000)	
마. 투자부동산의 취득	(4,481,867,011)		(43,531,834,494)	
바. 무형자산의 취득	(423,238,978)		(3,551,100)	
사.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0,084,075,810)		(2,500,795,320)	
아. 기타의투자자산의 취득	(21,530,000)		(2,5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498,799,146		15,918,570,5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5,895,503,000		20,000,000,000	
가. 차입금의 증가	53,000,000,000		20,000,000,000	
나. 교환사채의 발행	52,473,045,000		-	
다. 해외사모사채의발행	30,422,458,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4,396,703,854)		(4,081,429,500)	

가. 차입금의 상환	-		(2,000,000,000)	
나. 교환사채의 상환	(111,815,731,274)		-	
다. 배당금의 지급	(2,580,972,580)		(2,081,429,500)	
IV.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549,865,362)		(1,113,414,003)
V. 기초의 현금		871,725,973		1,985,139,976
VI. 기말의 현금		321,860,611		871,725,973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8 (당)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전)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1. 당사의 개황과 주요영업내용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0년 5월 15일에 화장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화장품 및 제약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상호를 한국콜마주식회사에서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당기		전기	
	보통주(주)	지분율(%)	보통주(주)	지분율(%)
윤동한	5,064,533	30.24	5,064,533	30.24
윤상현	3,126,475	18.67	3,126,475	18.67
일본콜마	1,337,463	7.99	1,337,463	7.99
기타	7,220,465	43.10	7,220,465	43.10
합계	16,748,936	100.00	16,748,936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교표시 된 전기의 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당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

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료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하거나(사후판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당기말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대여금및수취채권 7,478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1,246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6,81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 7,478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을 11,246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3,246백만원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8,000백만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대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을 76,819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당기말 현재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부채는 파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및수취채권 7,478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36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예비영향평가를 한 결과 당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

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2017년 3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 현재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별도로 식별할 수행의무가 없고 변동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수입수수료

수입수수료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이나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과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2)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 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 연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말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

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30년
건축물	15년
기계장치	6년
차량운반구	6년
공구와기구	6년
비품	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3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의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 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5.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와 당사가 보유하는 지분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또는 교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식별하여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

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 중 내재파생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만기상환금액은 이자금액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자본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7.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및 보상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분이 리스제공자에게 남아 있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추정과 판단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많은 추정과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할인율과 기대임금상승율 등 다양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2) 법인세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2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경영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 사항은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

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현준에이치	1971.07.24	-	-	이사회
김구철	1960.08.10	사외이사	-	이사회
최찬오	1969.12.15	사외이사	-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현준에이치	퀀테사인베스트먼트 대표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서던캐피탈그룹 대표	-
김구철	공주대학교 미디어학부 객원교수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	KBS 정치부, 특집부, 경제부 차장, 국제부 데스크, 대외정책팀 데스크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중앙일보 방송보도본부 부국장 TV조선 보도본부 편집에디터, 선거방송기획단장	-
최찬오	범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

※ 기타 참고사항

- 사외이사 후보 김구철, 최찬오는 1년 재선임 대상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2)	8(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000,000,000	5,000,000,000

주) 전기 및 당기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해당 기중 사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인원 등 총 보수액 측정 시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2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	300,000,000

주) 전기 및 당기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해당 기중 사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인원 등 총 보수액 측정 시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일자를 변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종속회사 및 연결 실적 결산과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의 일정으로 인해 당초 결정한 주주총회 일자(2018년 3월 23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